

『조선예술』 1990년 - 미술 읽기

『조선예술』 1990년 1월호(397호)~12월호(408호)에는 전반적으로 미술관련 분야의 글들이 많지 않다. 그마저도 만수대창작사 창립 30주년(1월호), 평양미술대학 창립 40주년(3월호), 전국산업미술전람회(8월호) 등 핵심 기관들의 창립기념일과 주요 전시들에 대한 리뷰 형태의 글들이 많다. 1990년 『조선예술』미술 분야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일 문제를 형상화한 대형 조선화를 부각시킨다. 연초와 연말에 만수대창작사의 집체작 <국제평화대행진>, <범민족대회>에 대한 장문의 비평글이 실렸다. 이를 통해 우리는 1990년 북한미술 분야에서 1989년 개최된 범민족대회 및 범민련 결성과 맞물려 ‘통일’ 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미술사 분야에서 풍경화(산수화)와 18세기 미술에 대한 관심이다. 김정일 시대 회화의 핵심 주제로서 ‘풍경’의 대두를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이 여럿 보이며(2월호, 3월호에 실린 공인세의 글, 5월호에 실린 하경호의 글), 풍경이라는 주제를 김홍도, 정선 등 18세기의 사실적 화풍에 연결하려는 시도도 보인다(10, 11, 12월호에 실린 류인호의 연재글)

끝으로 1990년대의 시작을 맞아 선전화의 역할을 부각시킨 글(6월호, 11월호)이 눈에 띄며 산업 증진과 관련된 도안미술이나 공예에 대한 관심도 주목할 만하다. 1990년 『조선예술』에서 본격 조명된 북한 미술가로는 도예가 임사준(8월호)이 사실상 유일하다. 임사준(1927~)은 고려청자 복원에 두각을 나타낸 작가로 평양미술대학 공예도안과 교원(1957~1961)과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 작가로 활동했다. 표지화에 개재된 미술작품에는 400호 발간 기념호(4월호)에 실린 박대연의 조선화 <경축의 아침>, 7월호에 실린 조선화 <영웅기관사>, 8월호에 실린 조선화 <해방의 환희>(지승석)가 있다.

홍지석